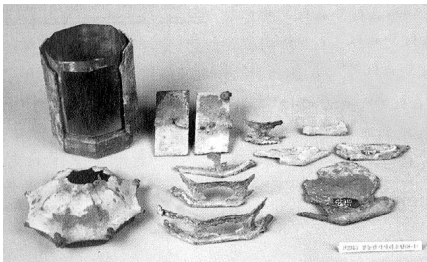


황룡사지 9층 목탑지 금동팔각 사리소탑 보존처리로 제 모습 찾아

황룡사지 9층 목탑지 금동팔각 사리소탑이 보존처리를 통해 복원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실 박학수 연구원이 지난해 12월 29일 발간된 <박물관 보존과학> 제4집에 기고한 '황룡사 9층목탑지 사리기 출토 금동팔각사리소탑의 보존처리' 논문을 통해 알려졌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보관하고 있던 이 사리소탑은 황룡사지 9층 목탑지에서 출토된 편과 압수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러 개로 분리되어 있었다.



◀황룡사지 9층 목탑지 금동팔각 사리소탑의 보존처리 전(사진 아래)과 후(위) 모습. 오유진 기자

익산 미륵사지서 출토된 납유리 7세기 일본에서 유통

7세기 익산 미륵사 근방에서 생산됐던 납유리가 일본에서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녹색의 판상 유리 30여점을 분석한 결과 7세기 일본 후쿠오카 미야지다케 고분에서 가공된 유리 판재, 유리구슬, 유리판의 성분과 납 동위원소가 일치해 이 같은 해석이 가능한 것.

강형태(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실 실장), 김성배(문화재청 매장문화재과), 허우영(호암미술관 문화재보존연구소), 김규호(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과) 씨 등의 공동연구결과 미륵사지 출토 유리는 납이 70~79%, 실리카가 20~28%의 범위로 분석됐으며, 납 원료는 부평지역 광산에서 조달해 일정한 배합비로 유리를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대부분 납유리가 완성품이 아닌 판상과 덩어리 형태라는 점은 언제든 가공, 외부유동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통영환경련, 조계종에 공개 질의

미륵산 케이블카 설치 관련 통영환경운동연합측이 최근 미륵산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 통영 옹화사(주지 선곡) 입장 선회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옹화사와 본사인 쌍계사, 조계종 총무원에 보냈다.

통영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12월 29일 보낸 질의서에서 "최근 선곡 스님은 통영시의회에 옹화사 경내

지에 불교조형물을 설치해 주고 경내 각종 문화재의 보수 및 묘사재, 대웅전을 건립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며 이것은 "불교조형물의 설치를 조건으로 케이블카 설치를 찬성하겠다는 뜻이 분명히 내포돼 있다"고 지적했다.

선곡 스님은 "종단이나 쌍계사와는 협의 없이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지진 피해 이란에 자비 손길

한국 JTS, 아프간 활동가 3명 현지 급파

최근 발생한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이란에 불자들의 손길이 전해진다.

한국JTS(이사장 법륜)는 이란의 케르만주 밤시로 아프가니스탄에서 구호활동을 하고 있던 이덕아(선주 법사) 씨 외 2명(한지영, 김동진)을 지난해 12월 30일 현지에서 급파했다. 31일 현지로 돌려본 이덕아 씨는 "도시 80%가 완전히 무너졌고 심한 지역은 구조대가 작업한 흔적만 남

아있다"며 "영화 세트장처럼 사람이 살지 않는 듯한 느낌"이라고 전했다.

또한 "밤시에서는 아무것도 구할 수 없고 적월사(Ren Cracel)에서 구호품을 분배 및 관리하고 있다"며 "남아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빠른 시일내 복구할 수 있게 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밝혔다.

JTS는 31일 현지에서 NGO 등록을 마친 뒤, 필요한 것을 조사해 물

품을 지원하는 활동을 할 계획이다. 우선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컨테이너 1대 분량의 생활필수품을 현지로 직접 들여갈 예정이다.

이처럼 한국JTS 사무국장은 "피해를 입은 밤시는 인구 9만 중반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해 돌봐줄 사람도 시설도 부족하다"며 "기운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추위로부터 보호받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국 민 은 행 484201-01-000585(예금주 : 한국JTS)



◀이덕아씨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한국JTS

한편 조계종 총무원의 직원모임인 '조계종 원우회'도 피해자들을 위한 모금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리크 난민, 태풍 매미, 대구지하철 참사, 스리랑카 수재 등에 대한 지원 활동을 계속해왔던 원우회는 12월 29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이란 지진 피해자 구호사업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키로 결의했다. 구체적인 모금활동 방향은 추후 결정키로 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기획실 감사국의 윤승환 주임이 제10대 원우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한영우 · 남동우 기자

외국인 노동자 신행요람으로

조계사, 올해 정기법회·무료법률상담 추진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신행요람으로 자리매김한다.

조계사(주지 지홍)는 2004년 중점 사업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정기법회 봉행, 무료법률 상담활동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외국인 노동자 법회 활성화 사업'을 지난해 12월 29일 밝혔다.

사업안에 따르면, 조계사는 우선

을 3월부터 태국인 노동자 법회를 봉행하고 그간 벌여온 몽골인 법회를 한달에 두 차례씩 정례화 하기로 했다. 또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안산이나 김포 지역에 상담사무실을 개소하거나 기존 불교계 시설을 후원할 계획이다.

특히 조계사는 한국불교 의식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신행활동을 돕기 위해, 해당 국가의

스님을 직접 초빙해 법회 집전과 신행상담을 전담케 할 방침이다.

조계사는 이를 위해 2004년 사업 예산안에 5천여만 원을 반영했으며, 부설 외국인안내소를 중심으로 실무진 구성을 마쳤다. 또 봉사활동 중인 사법연수원 다름마법우회, 불자노무사 등과 연계해 지원계획인도 마련했다.

조계사 중무실 유지호 실장은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이 불교권이지만, 정작 불교계에서는 이들 노동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서용 스님 사리 친견법회 이달 30일까지 백양사서

지난해 12월 13일 좌탈입적에 든 서용 스님의 사리가 공개됐다.

고불총림 백양사는 1월 1일 서용 스님 사리친견 법회장을 '참사람 수

행관'에 마련하고 오는 30일까지 일 반에 공개한다. 이날 공개된 서용 스님 사리는 명당수에서 수습한 참사리 4과와 슬골과정에서 나온 사리 1백여과이다. 사리친견 법회장에는 명당수를 담았던 향아리가 함께 전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수행관에는 서용 스님의 생

전 수행모습과 열반, 대비장면을 담은 사진 2백여장도 함께 전시돼 스님의 추모열기를 높였다. 백양사는 친견법회기간동안 매일 오전 10시 30분 특별정진을 갖는다.

한편 사리는 지난해 12월 20일 백양사 전통다비양식으로 수습됐다. 이준엽 기자

인 터 뷰

문화재 도난예방 최우선

공주경찰서 박상운 형사계장



"도난문화재 회수율이 10%가 채 안 된다고 하는데 국보를 보듬어 만에 찾아 경찰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도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5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국립공주박물관 국보 도난 사건. 다행히 도난당한 국보 제247호 공주의 당 금동보살은 사건 발생 보름여 만에 제자리를 찾았다. 공주경찰서 형사계 박상운 계장을 비롯한 12명의 경찰들이 힘을 모아 수사한 결과였다. 이들은 지난 7월에 문화재청장 표창장을 받고, 12월 말에는 보상금도 받았다. 이들에게 지급된 1천만 원은 지금까지 문화재 절취사범 체포 공로 보상금으로는 최대 금액이다.

국보를 찾은 것은 처음이라는 박상운 계장은 "국립 박물관 하면 방법이 당연히 철저하 게 있을 꺼라 믿었지요. 당시 사건이 발생하고, 사건을 담당하면서 문화유산 관리가 너무 허술하다는 것만큼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라며 안타까움을 숨기지 못했다. 그래도 공주 박물관 사건 후 박물관에 CCTV와 경보기 등 방범시설 설치가 확대 돼 다행스럽다며 안도하는 박 계장. 혼자 한 일이 아니라 공로자를 대표하기 민망하다며 소감 밝히기를 꺼린다.

박 계장 등은 이번에 받은 보상금 1천만 원을 경찰서 앞에 기념탑을 세우는데 전액 회사했다. 국보를 회수한 큰 사건이었던 만큼 문화재 도난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 동료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서다.

오유진 기자

국보 절취사범 체포 공로로 받은 1000만원 기념탑 건립에 쓰기로

목탁소리

고건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24일 발표한 북한산 관련 담화문을 통해 "국립공원 환경피해 최소화화 노원·도봉지역 등 서울 북부지역의 대기오염 피해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수환경 피해 최소화 대책 강화"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계획단계에서부터 역사·문화·환경적 요인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법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국립공원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시민환경단체 및 종교단체들과 협의 하여 개선해 나갈 것" 등을 약속했다.

박상운(취재 1부 기자)

수행했다.

조계종은 지난 2년 여간 자연과 수행 환경 보전을 위해 북한산 관통 저지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노선제검토위원회 구성 합의 등 대정부 교섭창구 역할을 해왔다. 조계종은 공식적으로 관통에 합의한 바 없다고 하지만 이와 관련된 수많은 시민·사구" 등을 회·환경단체들에게 비판을 당한 것도 사실이다.

북한산은 북한산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또 다른 북한산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문제의 당사자이자 책임자인 조계종이 법과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르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조계종도 살고 불교도 산다.

남동우(취재 1부 기자)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임시기도 목련사랑법회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 매월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산 동 선 회 법 회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행

곤지암 우리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III-1030]기도봉행

<제3차 1030일 지장천도기도>

○입재 : 2003년 11월 2일 ○회향 : 2006년 8월 27일

정초신장기도

○일시 : 1월 25일 ~ 2월 1일까지 오전 10시

입춘기도

○일시 : 2월 1일 ~ 2월 4일까지 오전 10시

갑신년(2004) 새해 새아침에
불자님과 함께 조용히 기도드립니다
새해에는 보다고운 맵씨이게 하소서
새해에는 보다고운 맵씨이게 하소서
새해에는 보다고운 맵씨이게 하소서
새해에는 보다고운 맵씨이게 하소서
새해에는 보다고운 맵씨이게 하소서
새해에는 보다고운 맵씨이게 하소서
새해에는 보다고운 맵씨이게 하소서
새해에는 보다고운 맵씨이게 하소서
새해에는 보다고운 맵씨이게 하소서